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사항을 같은 조례 제4조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고 시 명 :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 지정 고시 대상 : 총 2건

| 연번 | 지정사항 | 문화유산명 | 수량 | 소재지 | 소유자(관리자) |
|----|--------|------------------------------------|-----|--------------|----------------------------|
| 1 | 유형문화유산 |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 (東萊府 沙川面 古文書) | 24책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
| | | | 5책 | 부산광역시 사상구 | 함안조씨 동은공파 채실 사천재((沙川齋)) |
| 2 | 문화유산자료 | 범어사 청련암 석조여래좌상 (梵魚寺 靑蓮庵 石造如來坐像) | 1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 범어사 청련암 |

3.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4. 지정 일자 : 시보 고시일

5. 연락처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주 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 전 화 : 051-888-5082 / 팩스 : 051-888-5069
-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 전자메일 syjs1016@korea.kr

붙임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지정 고시 사유 1부. 끝.

【부산광역시유형문화유산 지정 고시】

□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東萊府 沙川面 古文書)

○ 명 칭 :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東萊府 沙川面 古文書)

○ 소유자(관리자) : 사상구(사상생활사박물관)

함안조씨 동은공파 재실 사천재(沙川齋)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58번길 36 사상생활사박물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47번길 74-4 함안조씨 동은공파 재실
사천재(沙川齋)

○ 수 량 : 29책

○ 규격(cm) : 25.0 × 19.5 등

○ 재질·형상 : 지류(紙類), 선장(線裝), 필사본

○ 제작연대 : 조선시대, 근현대(1612년~ 1996년)

○ 사 유 :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대까지 동래부 사천면의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의 재정 운영, 지방 행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이다. 동래부 사천면(沙川面)은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하구, 서구, 중구 일대이다. 1740년 동래부지(東萊府誌)에는 사천면은 (上端)과 (下端)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19세기 초에 사천면의 상단과 하단이 각각 분리 독립하여 사상면(沙上面)과 사하면(沙下面)으로 되어 사상면(沙上面)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에는 사천면과 사상면을 범주로 하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총 29책으로, 조선후기 동래부 사천면에서 조직된 9인계에서 비롯된 사상 9인의사연구재단보존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연구계(戀舊契) 관련 자료로서 사상생활사박물관에 기증한 각종 동안(洞案), 절목(節目) 등의 필사본 고문서 24책과 함안조씨 동은공파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호적중초(戶籍中草) 등 5책이다.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는 변방인 동래부 속의 변방이라고 여겨져, 가려졌던 사천면을 구명(究明)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래부 호적대장이 전승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동래 지역에 거주한 개개인의 인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자료이다. 또한 사천면에 존재한 다양한 조직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동안(洞案)과 대동안(大洞案),新安(新安), 개안(改案), 중수좌안(重修座案) 등으로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하고 다른 동계와 구분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간 지역사회의 노력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절목류는 사천면, 사상면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동래부의 행정, 사회, 문화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호적중초는 19세기 말 사상면 전체의 호수(戶數), 남녀성비, 연령분포, 직역(職役), 호의 구성원들을 살펴볼 수 있어 구식 호적대장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부산 동래 지역의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이 지역사회의 사회상을 밝힐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이처럼 「동래부 사천면 고문서」는 조선후기 동래부,

동래부 사천면, 동래부 사천면의 동, 리 등 각 지역 단위의 역사, 문화, 사회, 행정 그리고 지역민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으며, 조선후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동래지역 촌락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중한 유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문화유산자료 지정 고시】

□ 범어사 청련암 석조여래좌상(梵魚寺 靑蓮庵 石造如來坐像)

- 명 칭 : 범어사 청련암 석조여래좌상(梵魚寺 靑蓮庵 石造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범어사 청련암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46 범어사 청련암
- 수 량 : 1구(軀)
- 규격(cm) : 상높이 35.8, 정수리 ~ 턱 14.6, 이마선 ~ 턱 9.8, 얼굴 너비 8.9, 귀 ~ 귀 10.9, 어깨 너비 15.5, 무릎 너비 24.4, 무릎 높이 6.4, 바닥판 전후 너비 20.5, 바닥판 좌우 너비 25.4, 복장공 지름 8.0
- 재질·형상 : 석조, 도금
- 제작연대 : 1918년
- 제작자 : 완호(玩虎)
- 사유 :

범어사 청련암 석조여래좌상은 단정한 인상에 균형 잡힌 신체, 특히 오른쪽 엄지를 구부린 모양 등 전통성을 지니면서도 조각승 완호의 전형적인 표현기법이 잘 드러나 있다. 완호(玩虎)는 부산 및 경상도 일대에서 근대기 불상과 불화를 제작한 근대 불교미술에 있어 중요한 불모(佛母)로, 현재 1922년 부산 복천사 석조석가여래좌상·보현보살좌상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제94호, 2008.12.16.지정)로, 1930년 연등사 석조지장보살상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자료(제103호, 2018.5.23.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범어사 청련암 석조여래좌상은 1917년 울주 시적사 석조지장보살좌상에 이은 1918년 작으로 완호의 불상 중 두 번째로 빠른 작품이며, 부산시 문화유산자료인 복천사 석조석가여래좌상 및 보현보살상, 연등사 석조지장보살좌상보다 빨리 제작된 상이다. 비록 범어사의 말사 장유사에 봉안되었던 상이기는 하나 완호가 범어사에서 불화소를 운영하여 제자를 양성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장유사와 범어사의 관계 등 근대기 사찰 운영 상황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청련암 석조여래좌상은 근대기 불모와 사찰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학술적 자료로써 가치가 충분하므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만하다고 사료된다.